
2017 베트남 진출전략

2016. 11

kotra
하노이 무역관

목 차

I. '17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
1. 한-베 수교 25주년	1
2.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
3. 정부 정책에 따라 부품소재 신재생 에너지 유망산업으로 부상	2
4. 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수원 대상 국가에서 제외	2
II. 진출환경 분석	4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4
2. 경제 환경	4
3. 산업 환경	5
4. 정책·규제 환경	7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10
III. 시장 분석	14
1. 수출	14
2. 투자진출	24
3. 프로젝트	27
4. ODA(공적개발원조)	30
VI. 시장진출전략	32
1. 진출전략 개관	32
2. 분야별 진출전략	33
첨부. '17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40

※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및 투자진출 가속화 되었으며 2017년은 한-베 수교 25주년으로 양국의 외교적·경제적·문화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베트남 위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우리기업들은 베트남의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 정책, 인프라 구축 및 건설 프로젝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진출 전략 수립 필요

1. 한-베 수교 25주년

□ 수교 25주년 맞이하여 양국 협력 확대 전망

- 양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등 각 분야별로 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및 기념행사 개최가 예상됨
- 2017년은 두 나라의 협력 및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

2.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 제29차 APEC 정상회의, 베트남 중부 다낭(Da Nang)에서 11월 중 개최 예정

- 올해로 APEC 가입 18년차에 접어든 베트남은 2006년 하노이에서의 APEC 회의 개최 이후, 11년 만에 두 번째로 APEC 회의 개최
- 2007년 WTO 가입으로 국제무대에 본격 데뷔한 베트남은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현재 떠오르는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
- 이러한 시점에 APEC 회의 개최는 베트남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위상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세계경제 통합 심화에 따라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APEC 회원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국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다는 것에 이번 APEC 회의 개최의 의의를 두고 있음

3. 정부정책에 따라 부품소재·신재생 에너지 유망 산업으로 부상

□ 2016년 1월 1일부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시행

-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자국기업에 법인세, 수입세, 부가세, 상업 대출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중점 개발 부품소재산업 분야는 ①기계공학부문, ②전자정보기술 부문, ③ 자동차 조립·생산 부문, ④섬유·의류 부문, ⑤신발·가죽 부문, ⑥첨단 기술 부문으로 총 6개 분야
- 최근 우리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동향은 전기, 전자부품 등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로 우대분야 투자에 따른 조세 특혜, R&D·기술이전·인력개발·마케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하는 전력개발계획 발표

- 베트남 발전설비용량 확충 계획은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나 수정 계획안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 목표 용량은 30%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 2030년까지 총 83 개의 석탄 발전소, 20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보유 계획 발표
- 이번 수정안에는 고압 송전망 중심의 전력 확충계획과 태양광 에너지 개발 계획도 포함
 - 베트남은 2020년까지 500kV와 220kV급 송전망을 각각 10,052km(용량 76,600 MVA), 14,999km(용량 101,604 MVA) 확대할 계획이며 총 400억 달러 투자 예정
 - 기존 수력발전 중심이었던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에 태양광 에너지 개발 계획 신규로 추가

4. 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 수원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세계은행(2017년 7월), 아시아개발은행(2019년 1월) 베트남 ODA 중단계획 발표

- 2010년 세계은행이 베트남을 하위소득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로 격상한 이후 베트남의 ODA 수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1년~2015년 베트남이 체결한 ODA 전체 규모는 약 US\$ 277억 달러이나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지원 약속 받은 규모는 약 140억 달러로 50% 수준에 그침
- 수원여건 변화에 따라 인프라 사업 추진 방향 변화할 것으로 전망
 - 대외차관 대부분이 베트남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쓰이는 만큼 ODA 지원 중지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향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민간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교통·운송, 도시개발, 에너지 등 각종 인프라 분야에서 PPP 형태로 추진될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2017년 주요 일정

- 2017 베트남 엑스포 : 2017. 4. 19~22
- 제 29차 APEC 회의 : 2017. 11월 (잠정)
-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 2017. 12. 22

※ 베트남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 등으로 각국의 글로벌 기업의 유망 투자국으로 각광 받고 있음. 특히 2016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며, 베트남에게 한국은 투자 1위국으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음.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베트남,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유망 소비시장으로 부상

- 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 상 중국의 대안으로만 여겨졌던 베트남은 유망 소비시장으로서 각광받기 시작
 - 9,000만 이상의 인구, 젊은 인구구조(평균 연령 30세), 낮은 도시화율, 경제 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가 베트남 소비시장의 성장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 2015년 베트남의 총 가처분 소득 : 1274억 5,600만 달러(2010년 대비 91.6%↑),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 : 3,455 달러(2010년 대비 58.7%↑), 중산층 가구 수 630만 9,600가구 (총 가구의 23.3%) [자료원 : Euromonitor International]

□ 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개발 수요 확대

- 기술 및 인프라 미비가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회 전반의 인프라 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석유화학, 상하수도 처리, 도로·교량·항만·공항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분야 진출 확대가 전망됨

2. 경제 환경

□ 베트남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베트남은 2015년, 지난 8년 중 최고치인 6.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은 상반기 경제성장 부진으로 올해 정부의 성장목표 (6.70%↑) 달성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
 - 제조·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큰 폭으로 성장한 반면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업 생산량 감소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자원개발 분야 성장 저조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
 - *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 ('13) 5.4 → ('14) 6.0 → ('15) 6.7 → ('16 1H) 5.52

- (교역) 베트남 산업생산 활성화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증가로 2015년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 2016년 상반기 흑자로 전환
 - 2016년 상반기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US\$ 821억 3200만 달러(전년동기대비 5.7%↑), 804억 3,400만 달러(0.8%↓)로 16억 9,800만 달러 흑자 달성
 - 휴대폰, 전자제품, 섬유·의류, 신발 등 제조분야 수출이 수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유가하락 및 세계 농산물 시장 경쟁심화로 2015년에는 2010년 이후 최저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
 - * 연도별 수출 성장률 추이(%) : ('10)26.5→('11)34.2→('12)18.2→('13)15.3→('14)13.8→('15)7.9
 - 세계 교역 둔화와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당초 베트남 정부 목표인 전년 대비 10% 수출성장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둔화되었던 對베트남 외국인 신규투자는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힘입어 호조세 유지 중
 - 2016년 상반기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680건(전년 동기대비 61.8%↑), US\$ 112억 8,000만 달러(105.4%↑)임.

□ 베트남의 중장기적 경제 성장 전망

- 2016년 상반기 베트남 거시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 단기적 성장 둔화 불가피
 - 하반기 대내외 여건이 안정화되면서 더 이상의 경기 후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결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없어 전년도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베트남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외국인투자 확대되고 있어 베트남의 중장기적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3. 산업 환경

□ 휴대전화 제조업 : 베트남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 수출증가세 지속

- 2013년 휴대전화는 1위 수출품목이었던 섬유·의류 품목을 제치고 베트남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수출액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2016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전화기 및 부품 수출액은 US\$ 169억 4,600만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약 21%를 차지.
 - * 베트남 전화기 및 부품 수출액(US\$ 억) : ('13) 212 → ('14) 236 → ('15) 302 → ('16.1H) 169

□ 섬유·의류산업 : 2위 수출품목으로 베트남 수출성장 견인하는 핵심산업

-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액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동 품목 수출액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3.2%에 상당하는 108억 4,700만 달러를 기록
 -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수출액(US\$ 억) : ('13) 179 → ('14) 209 → ('15) 228 → ('16.1H) 108
- 현재 비준 단계에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2018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연합-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섬유·의류 산업이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어 해당 분야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TPP 비참여국인 중국의 섬유·의류 기업들의 베트남으로 투자 진출 가속화
 - * Polytex Far Eastern(대만) 의류 원부자재 생산공장 설립(2억 7,400만 달러), Worldon Vietnam(홍콩) 의류봉제공장 확장(1억 6,000만 달러), De Licacy Vietnam(대만) 섬유생산·제직·프린트·봉제공장 설립(1억 달러)
 - * 홍콩 최대 의류봉제 기업인 Luen Thai International group, 중국의 Sanshui Jialida, 베트남 최대 의류기업 Vinatex가 대규모 의류·섬유 공단 조성 추진 중
- 한편 베트남 정부는 섬유소재·의류 부자재 산업이 취약하고 봉제임가공에만 집중되어 있는 섬유·의류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 2014년 4월 1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①수출용 의류산업의 시장기회 활용 강화, ②산업용 및 의료용 섬유제품 수출을 위한 직물생산 방안 구축, ③면사·섬유사 및 부자재 원료자원개발을 중요 산업영역으로 제시한 「2030년 전망, 2020년까지의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발전 계획」 발표(Decision 3218/QD-BCT)

4. 정책 · 규제 환경

□ 2016-2020년,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

- 2016년 4월,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 목표 경제성장 달성 및 국내 생산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5개년 개발 계획 발표

* 관련 법령 : Resolution No.142/2016/QH13

<베트남 2016~2020 경제·사회 개발 계획 주요 목표>

구분	지표	목표치
경제 지표	5년간 평균 국내총생산량(GDP)	6.5~7 %/년
	2020년 1인당 평균 GDP	약 US\$ 3,200~3,500
	2020년 GDP 내 공업 및 산업 비중	약 85%
	5년간 평균 사회 전체 투자총액	GDP의 약 32~34%
	2020년 국가재정 적자액	GDP의 4% 미만
	경제성장 기여 총 요소 생산성(TFP)	약 30~35%
	사회 노동생산력 평균 성장률	약 5%/년
	평균 GDP 대비 에너지 소모율	1~1.5 %/년 감소
사회 지표	2020년까지의 도시화율	38~40%
	2020년 사회 총 노동력 가운데 농업 노동력 비율	약 40%
	2020년 훈련된 노동인구 비율	약 65~70%
	2020년 훈련된 노동인구 중 학위·자격증 소지자 비율	25%
	2020년 도시지역 실업률	4% 미만
	202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9~10명
	2020년까지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26.5개
	2020년 의료보험 보급률	인구의 80% 이상
환경 지표	빈곤가구 평균 감소율	약 1.0~1.5 %/년
	2020년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사용률	도시인구의 95%, 농촌인구의 90%
	2020년 위해 폐기물 처리율	85%
	2020년 의료 폐기물 처리율	95~100%
	2020년 산림율	42%

* 자료원 : Resolution No.142/2016/QH13

□ 제조업 육성정책

- 베트남은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임·수산물 가공,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2014년 6월 9일자 Decision 879/QD-TTg)

- 베트남은 자국 제조산업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베트남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및 투자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투자법·기업법 개정) 외국투자 법인에 대한 정의규정 변경,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허가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보다 유리해진 조항 포함(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 (주택법·부동산사업법 개정) 외국인 및 재외 베트남인(교포)의 부동산 취득 요건 완화, 외국인의 전대 목적 건물 임차 허용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활동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 해외자금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 등 금융시장의 개혁·개방 추진
 - (외국인 투자한도 상향조정) 2015년 9월, 일반기업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정을 철폐한 이후 석탄, 사료 수입, 인프라 운영 등 67개 세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상향 조정 추진 중임
 - (환율제도 변경) 2016년 1월 4일부터 기존 '고정 환율제도'를 '선택적 환율제도(원화를 포함한 8개 통화의 가중 평균으로 기준환율을 매일 제시하는 방식)'로 변경함으로써 달러 대비 동 환율 안정화를 도모
 - (선물시장 도입 추진)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2017년 초 베트남시장 선물 시장 도입을 발표함

□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련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확대 중

- 최근 베트남 정부는 교통망 확충,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추진 중임
 - 신흥국 간의 외자유치 경쟁 심화, 현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저임금 메리트 상실 등으로 베트남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 방안으로서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단, ODA 수원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중앙정부 재정 악화가 우려됨
 - 2010년 베트남이 '하위 소득국가'에서 '중간하위 소득국가'로 격상되면서 ODA 수원규모가 축소되었고 상환기간, 연이자율 등의 융자조건이 악화됨
 - 2016~2020년까지 베트남 중앙 및 지방 정부의 ODA 수요는 약 US\$ 395억 달러이나 실제 체결 가능한 수원액은 200에서 25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민간자본유치 확대 중임
 - 열악해진 ODA수원 여건, 지속되는 적자재정 및 공공부채 규모 증가, 베트남 채권시장의 발달 미비로 정부재정 주도 인프라 개발의 한계를 직시한 베트남 정부는 법제 정비, 차관 도입 방침 변경 등 추진
 - * 2015년 2월, PPP 사업 가능영역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방식 허용을 골자로 하는 「PPP 방식 투자에 대한 시행령(Decree 15/2015/ND-CP)」 발표

□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

- 2016년 9월 기준, 베트남은 총 16개의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음
 - 총 11개 무역협정이 체결 완료되었으며 그 중 9개 협정이 발효 중임
 - 유럽연합-베트남 FTA(EV FTA)을 포함하여 5개 협정이 협상 중이거나 협상 타결 후 체결 준비 단계에 있음
 - * 2015년 5월 체결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베트남 FTA는 2016년 10월 발효될 예정이며, 2015년 12월 정식 협상 타결된 유럽연합-베트남 FTA(EV FTA)는 2018년 내 발효를 목표로 협정문서 검토과정에 있음

<베트남 참여 FTA 현황>

구분	FTA	서명시기	비고
체결 완료	AFAS (ASEAN 역내 서비스 기본협정)	'95. 12. 15	'15. 11. 27 9차 서비스 조약 패키지의 시행 의정서 체결
	ATIGA (ASEAN 상품무역협정)	'09. 02. 26	'10. 05. 17 발효
	ACIA (ASEAN 포괄적 투자협정)	'09. 02. 26	'12. 03. 29 발효
	AIFTA (인도-ASEAN FTA)	'09. 08. 13	'10. 01. 01 발효
	AANZFTA (호주/뉴질랜드-ASEAN FTA)	'09. 02. 27	'10. 01. 01 발효
	AKFTA (한국-ASEAN FTA)	'06. 08. 24	'07. 06. 01 발효
	AJCEP (일본-ASEAN FTA)	'08. 04. 15	'08. 12. 01 발효
	ACFTA (중국-ASEAN FTA)	'04. 11. 29	'05. 07. 01 발효
	VJEPA (일본-베트남 경제동반자협정)	'08. 12. 25	'09. 10. 01 발효
	VCFTA (칠레-베트남 FTA)	'11. 11. 11	'14. 01. 01 발효
	VKFTA (한국-베트남 FTA)	'15. 05. 05	'15. 12. 20 발효
	VA-EAEU FTA (유라시아 경제연합-베트남 FTA)	'15. 05. 29	현재 비준절차 완료 ('16년 10월 5일부터 발효 예정)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6. 02. 04	현재 비준절차 진행 중	
협상 타결	EVFTA (유럽연합-베트남 FTA)	-	'15. 08. 04 기본 협상타결 '15. 12. 02 정식 협상타결 선언 (현재 협정문서 검토 중)

협상 중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12. 11. 20 협상개시 선언 '16. 6. 12 ~ 18 13차 협상 완료
	VEFTA FTA (유럽자유무역연합-베트남 FTA)	-	'12. 07. 03 협상개시 선언 '15. 10. 20~23 13차 협상 완료
	AHKFTA (홍콩-ASEAN FTA)	-	'14. 04. 02 협상개시 선언
	이스라엘-베트남 FTA	-	'15. 12. 02 협상개시 선언

* 자료원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5.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양국 교역 동향

-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교역액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
 -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고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되면서 양국 간 교역액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짐
 - * 한국 교역 내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 ('07) 13위 → ('10) 9위 → ('12) 6위 → ('13) 6위 → ('14) 6위 → ('15) 4위
 - 수입 : ('07) 32위 → ('10) 28위 → ('12) 20위 → ('13) 16위 → ('14) 15위 → ('15) 10위
 - 교역 : ('07) 25위 → ('10) 15위 → ('12) 14위 → ('13) 9위 → ('14) 8위 → ('15) 4위
 - 2016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8위)
 - 사상 최초로 한국의 3대 수출국에 진입
 - 동기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51억 7,800만 달러(전년 동기대비 10.7% ↑), 56억 3,600만 달러(37.9% ↑)로 95억 4,200만 달러의 흑자 기록
 - * 2016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대상국(수출 4위, 수입 2위)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 >

(단위 : USD백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월)
수출 (한→베)	13,465	15,946	21,088	22,352	27,771	15,178
수입 (베→한)	5,084	5,719	7,175	7,990	9,805	5,636
한-베 교역액	18,549	21,665	28,263	30,342	37,576	20,814
무역수지	8,381	10,227	13,913	14,362	17,966	9,54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2016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에서는 생산재(자본재와 원자재)의 비중이 절대적(92.9%)이며, 수입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자본재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및 협력사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각종 전자제품, 섬유·의류, 신발,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입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2016년에 들어서는 자본재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품목 성질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동향>

(단위 : USD백만, %)

품목성질	구분	수출 (한→베)			수입 (베→한)		
		2014	2015	2016 (1~6월)	2014	2015	2016 (1~6월)
자본재	교역액	11,670	15,584	9,549	1,582	3,253	2,429
	비중	52.2	61.0	62.9	19.8	33.2	43.1
원자재	교역액	8,773	7,984	4,442	1,804	1,754	893
	비중	39.3	31.2	29.3	22.6	17.9	15.9
소비재	교역액	1,898	1,995	1,182	4,604	4,798	2,312
	비중	8.5	7.8	7.8	57.6	48.9	41.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16년 상반기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교역 품목(MTI 3단위 기준)>

(단위 : USD백만, %)

순위	수출 (한→베)		수입 (베→한)	
	품목명	금액(증감률)	품목명	금액(증감률)
1	무선통신기기	2,449(13.6)	무선통신기기	1,452(277.9)
2	반도체	2,283(102.6)	의류	927(18.9)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60(53.1)	신발	309(10.5)
4	기구부품	812(45.6)	컴퓨터	258(40.8)
5	합성수지	535(-4.8)	목재류	205(20.7)
6	석유제품	496(424.5)	기타섬유제품	140(10.4)
7	편직물	493(3.5)	기구부품	118(60.3)
8	자동차	422(-24.8)	영상기기	118(218.3)
9	플라스틱제품	414(-19.2)	갑각류	85(5.3)
10	철강판	360(-22.6)	계측제어분석기	82(-11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동향

- 한국은 2014년 베트남 1위 투자국 자리를 탈환한 이래, 2위 투자국인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며 최대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
- 전체 누계('88~'16.6)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FDI)는 총 5,364건, 485억 1,000만 달러이며, 이는 베트남이 유치한 직접투자 총액의 16.5%에 달함
- * 누계('88~'16.6) 기준, 국가별 對베트남 직접투자 현황(건/US\$ 억/비중 %) : 한국 (5,364/485.1/16.5), 일본(3,117/398.0/13.6), 싱가포르(1,643/379.0/12.9), 대만(2,525/318.6/10.9)

<한국의 연도별 對베트남 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USD백만, 신고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월)	누계 ('88.1.1~)
투자 건수	345	332	488	684	962	546	5,364
투자액	1,466.6	1,178.0	4,293.5	7,327.5	6,726.9	3,991.4	48,510.0

*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한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제4위 투자대상국이자 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임
- 투자 유형별로는 100% 외국인투자 방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작과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형태의 투자도 일부 진행되고 있음

<한국의 유형별 對베트남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USD백만)

연번	투자 유형	누계('88. 1. 1 ~ '16. 6)		2016(1월 ~ 6월)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	100% 외국인투자	4,795	43,093.6	504	3,927.5
2	합작	534	4,753.1	40	62.8
3	BOT, BT, BTO ¹⁾ 계약	1	340.0	-	-
4	BCC(경영협력계약)	34	323.3	2	1.1
총계		5,364	48,510.0	546	3,991.4

*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1) Build Operate Transfer / Build Transfer / Build Transfer Operate

□ 무역협정 체결 동향

○ 현재 양국 간 체결된 무역협정으로는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가 있음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

구 분	한-ASEAN FTA (또는 AK FTA)	한-베트남 FTA (또는 VK FTA)
추진과정	- '04년 11월 30일 협상개시 - 총 17차례의 협상 진행	- '12년 8월 6일 협상개시 - 총 9차례의 협상 진행
발효일	- '07년 6월 1일 상품협정 발효 - '09년 5월 1일 서비스협정 발효 - '09년 9월 1일 투자협정 발효	- '15년 12월 20일
의의	-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함	- 우리나라가 타결한 열다섯 번째 FTA이자, 한-ASEAN FTA 첫 개별국 업그레이드 협상 - 기존 한-ASEAN FTA상의 양국 간 불균형한 상품 양허 수준을 개선
효과·기대	- 한국의 對 베트남 수입관세인하에 따라 선진국 및 한국 시장을 겨냥한 수출기지로서의 베트남 투자진출이 확대됨	- 민간 품목군 추가 개방을 통한 수출 확대 기대 -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거대 내수소비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 마련 - 건설 및 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 임대 등의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 분야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III

시장 분석

※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발전에 힘입어 원자재 및 자본재 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매력 높아져 외국인투자 유입도 꾸준한 증가세 유지.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수출과 투자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공공조달 프로젝트가 2017년에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1. 수출

□ 최근 베트남의 수입 동향

- 글로벌 제조기업의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이 잇따르면서 생산재 수입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2년부터 베트남 수입의 50% 이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2015년 외국인투자 기업 수입금액 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58.7%를 차지
 - 이는 베트남 기계 산업 및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하여 생산가동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이 어렵기 때문임

<베트남의 수입액 추이>

(단위 : USD백만,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월)
총 수입액 (증감률)	106,750 (25.8)	113,780 (6.6)	132,033 (16.0)	147,849 (12.0)	165,570 (12.0)	80,434 (-0.8)
FDI기업군의 수입액 (증감률)	48,837 (32.1)	59,941 (22.7)	74,435 (24.2)	84,211 (13.1)	97,226 (15.5)	47,097 (-2.2)
비중	45.7	52.7	56.4	57.0	58.7	58.6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세계적인 저물가 추세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수입액 소폭 하락
 - 2016년 1~6월 베트남의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91.3%에 해당하는 US\$ 737억 달러로, 생산재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
 - 이에 반해, 베트남의 소비재 수입액은 US\$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

<2016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 (수입액 순)>

(단위 : USD백만, %)

순번	품목명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가율	비중
1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13,086	-6.0	16.3
2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12,624	12.9	15.7
3	각종 직물	5,056	1.7	6.3
4	각종 전화기 및 그 부품	4,795	-8.3	6.0
5	각종 철강재	3,809	3.3	4.7
6	플라스틱 수지	2,817	0.1	3.5
7	섬유·의류·신발·가죽 원부자재	2,526	0.9	3.1
8	각종 유류제품	2,424	-17.0	3.0
9	기타 비금속	2,225	22.9	2.8
10	플라스틱 제품	2,046	16.3	2.5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 2016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2위 수입국임

- 2016년 1~6월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액은 US\$ 147억 6,900만 달러로, 동기간 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 수입액만이 7.2%의 증가율을 기록

<2016년 상반기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가>

(단위 : USD백만, %)

연번	국가명	수입액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	중국	23,165	27.4	-3.4
2	한국	14,769	17.5	7.2
3	일본	6,868	8.1	-5.6
4	대만	5,325	6.3	-3.9
5	태국	3,898	4.6	3.8
6	미국	3,790	4.5	1.7
7	싱가포르	2,572	3.0	-27.1
8	말레이시아	2,498	3.0	18.7
9	인도	1,279	1.5	-5.2
10	독일	1,302	1.5	-21.4
	기타	18,967	22.5	31.4
	전체 수입액	80,434	100.0	4.1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

- 베트남 관세청 수출입 품목 분류 기준, 2016년 상반기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각종 전화기 및 그 부품, 각종 식물 등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전기·전자 제조기업과 의류봉제기업을 위한 생산재가 대부분임

<2016년 상반기 베트남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D백만, %)

연번	품목명	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4,110	24.6	27.8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2,660	-1.4	18.0
3	각종 전화기 및 그 부품	1,682	13.1	11.4
4	각종 식물	910	0.3	6.2
5	플라스틱 제품	614	19.4	4.2
6	플라스틱 수지	524	-8.2	3.5
7	기타 비금속	480	1.1	3.3
8	각종 철강재	444	-20.1	3.0
9	섬유·의류·신발·가죽 원부자재	392	-0.1	2.7
10	자동차 액세서리 및 부품	389	50.1	2.6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베트남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별 경쟁동향

○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 베트남은 컴퓨터 및 전자부품은 주로 한국, 중국,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고 최근 미국 및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베트남의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수입 현황>

(단위 : USD백만, %)

순위	국가명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1	한국	3,299	29.5	4,110	32.6	24.6
2	중국	2,365	21.1	2,531	20.0	7.0
3	대만	982	8.8	1,379	10.9	40.5
4	일본	1,103	9.9	1,123	8.9	1.8
5	미국	777	6.9	1,010	8.0	30.1
품목 전체 수입액		11,184	100	12,624	100	12.9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가운데, 동 품목 주요 수입국인 중국, 한국, 일본의 수입액도 감소하였음
 - 2016년 상반기 기준 한국 수입액은 동 품목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함

< 베트남의 기계, 장비, 도구 및 기구 수입 현황 > (단위 : USD백만, %)

순위	국가명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1	중국	4,469	32.1	4,175	31.9	-6.6
2	한국	2,698	19.4	2,660	20.3	-1.4
3	일본	2,525	18.1	1,991	15.2	-21.2
4	대만	758	5.4	666	5.1	-12.1
5	독일	552	4.0	592	4.5	7.2
품목 전체 수입액		13,915	100	13,086	100	-6.0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수입은 2016년 상반기 주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대폭 감소한 가운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3.1% 증가

< 베트남의 각종 전화기 및 그 부품 수입 현황 > (단위 : USD백만, %)

순위	국가명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1	중국	3,351	64.1	2,870	59.9	-14.3
2	한국	1,487	28.4	1,682	35.1	13.1
3	홍콩	107	2.0	40	0.8	-63.0
4	일본	45	0.9	20	0.4	-56.0
5	대만	48	0.9	12	0.2	-56.0
품목 전체 수입액		5,231	100	4,795	100	-8.3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한국은 베트남의 직물 품목의 2위 수입국이나 1위 수입국인 중국과는 큰 격차가 있음

< 베트남의 각종 직물 수입 현황 > (단위 : USD백만, %)

순위	국가명	2015년 1분기		2016년 1분기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1	중국	2,528	50.8	2,631	52.0	4.1
2	한국	908	18.2	910	18.0	0.3
3	대만	778	15.6	737	14.6	-5.3
4	일본	270	5.4	299	5.9	11.0
5	홍콩	131	2.6	112	2.2	-14.4
품목 전체 수입액		4,974	100	5,056	100	1.7

*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 진입장벽

○ 베트남은 12개 품목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2013년 11월 20일자 정부 시행령(Decree 187/2013/ND-CP)을 보면 수입 금지 12개 품목군을 확인할 수 있으나 품목별 세부 기준 및 Hscode 공시는 관련 중앙정부부처에서 발표하고 있음

<베트남의 수입 금지 품목>

연번	품목명	관할부처
1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사용 기술 장비	국방부
2	각종 폭죽(교통운송부 지침에 따른 항해 선박 안전용 폭죽 제외), 교통수단 속도측정을 방해하는 각종 장비	산업무역부
3	다음 품목에 해당되는 중고 소비재 - 섬유·의류제품, 신발 - 전자제품 - 냉장기기 - 가전제품 - 의료장비 - 인테리어 제품 - 도기, 유리, 금속, 플라스틱, 고무, 수지 및 기타 자재로 된 가정용품 - 정보통신 제품	산업무역부 (정보통신 제품 제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제품에 한함)
4	- 베트남 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 우편법에 의해 사업, 교환, 전시, 선전이 금지된 우표 - 무선장비, 무선전파기술 응용장비 중 무선주파수 개발계획 및 무선주파수법 규정과 관련 있는 기술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	정보통신부
5	베트남 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되었거나 그러한 내용의 정부 결정이 내려진 각종 문화상품	문화체육관광부
6	- 운전석이 우측에 있는 운송수단(분해된 상태의 운송수단 및 베트남 수입 전, 운전석 위치를 바꾼 운송수단 포함). 단, 활용 범위가 좁고 도로를 통행하지 않는 특장차량(기중기, 굴착기, 도로 청소차, 살수차, 생활폐기물 운반차, 도로시공차, 공항 내 승객운송차, 창고·항만에서 사용되는 포크레인, 레미콘, 골프장·공원에서만 통행하는 차 등)은 제외됨. -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 수정된 각종 자동차 및 그 부품 -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 수정된 각종 일반 및 특수용도의 오토바이	교통운송부

7	<p>다음에 해당되는 중고 자재와 운송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의 기기, 프레임, 타이어, 부품 엔진 - 자동차, 트랙터의 차대(chassis)로서, 중고 엔진이 부착된 새 차대와 새 엔진이 부착된 중고 차대를 모두 포함 - 당초 설계 대비 기능변환 목적에서 차량 구조를 변환하였거나, 프레임과 엔진 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 수정된 각종 자동차 - 구급차 - 자전거 - 오토바이 	<p>교통운송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제외)</p> <p>산업무역부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한함)</p>
8	Rotterdam 조약 부록 III에 속하는 화학물질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9	베트남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보호제	농업 및 농촌개발부
10	폐기물, CFC(염화불화탄소)를 사용하는 냉장장비	자원환경부
11	각섬석에 속하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 및 자재	건설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개발·생산·소지·사용·파괴 금지 조약 및 동 조약 이행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Decree 100/2005/ND-CP)에서 규정한 독극화학물 - 화학물법 일부 규정 시행안내 세부규정 시행령(Decree 108/2008/ND-CP)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 	산업무역부

* 자료원 : Decree 187/2013/ND-CP

- 일부 품목에 한해 외국인투자기업 베트남 내 수출입 및 유통권 제한
 -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인 베트남은 WTO 조약 이행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매활동,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각종 활동 개방,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 또는 유통할 수 없는 품목 공시 중임 (Circular 34/2013/TT-CBT)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수출입·유통 제한 품목>

구분	품목명	HS Code / 상세기준
수출금지 품목	광유 및 역청광 추출 원유	2709.00/10/20/90
수입금지 품목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	2402.10.00, 2402.20.10/20/90, 2402.90.10/20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2403.11.00, 2403.19.11/19/20/9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및 웨이스트오일	2710.12/11/12/13/14/15/16/20/30/40/50/60/70/80/90, 2710.19.20/30/41/42/43/44/50/60/71/72/79/81/8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4902.10.00, 4902.90.10/90
	디스크·테이프 및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디스크·테이프 생산을 위한 패턴과 주요 자재까지 포함)	8523.21.90, 8523.29.21/29/41/42/43/49/61/62/63/69/81/82/83/84/89/63
	기타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8802.11.00, 8802.12.00, 8802.20.10/90, 8802.30.10, 8803.10.00, 8803.20.00, 8803.30.00, 8803.90.10/20/30
유통금지 품목	쌀	-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
	담배, 시가	-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궤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 - 기타 제조 담배와 기타 제조된 담배 대용물; "균질의" 또는 "재구성된" 담배, 담배 추출 및 에센스
	원유 및 가공유	- 원유 형태의 광유와 역청유 - 광유 및 역청유
	약품	- 의약품법(Law 34/2005/QH11) 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
	폭발물	- 추진용 화약 - 추진용 화약 이외의 폭발 조제물 - 안전신관, 기폭신관,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서적, 신문 및 잡지	- 인쇄 된 책, 브로셔, 전단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장 수 불문) - 전문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삽화 또는 광고물의 포함 여부 불문) - 아동용 도서, 삽화, 색칠하기 책

	귀금속 및 귀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아몬드(가공 여부 불문)로서 부착되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귀석 또는 준귀석(가공 또는 등급분류 여부 불문)으로서 줄로 꿰거나 아교를 붙이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 합성, 복원된 귀석 또는 준귀석(가공 여부 불문)으로서 줄로 꿰거나 아교를 붙이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은(금 또는 백금 도금 포함) -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금(백금 도금 포함) -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백금 - 백금을 입힌 은 또는 금으로서 반제품 형태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 주화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제품(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따른 문화, 사회, 정치 안보 제품(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자료원 : Circular 34/2013/TT-CBT

○ 기타 수입 규제

1) 중고기기 수입제한 규제

- 2015년 11월 13일 부로 개정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Circular No. 23/2015/TT-BKHCHN)에 의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고기계만 수입이 가능

- i) 제조연한 10년 이내의 것(제조연도부터 베트남에 도착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
 - ii)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가 기술 규정(QCVN) 또는 베트남 기준(TCVN), G7국가 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된 것
 - iii) 중고 부품 등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사용 중인 기계의 교체나 수리용으로 종류나 수량이 인정되는 것
- ※ 유관 정부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조연한 10년 이내’인 수입요건은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으며, 일시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 제조가 불가능한 기술개발 물품, 국방·안보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제한적으로 요건적용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제조연도와 제조기술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 확인서 또는 공인 시험 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
 -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수입하는 중고기계의 경우, 투자등록증명서와 수입 예정 중고기기 리스트 제출 시 수입요건 적용 면제
- 문제점 : 수입 가능 중고기계의 기술표준 관련 세부기준 미비, 수입요건 적용 면제 관련 세부지침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중고기기 수입이 어려운 상황

3) 수입규제조치 적용 확대

- 2016년 9월 말 기준 베트남의 수입규제는 총 6건(규제 시행 5건, 조사 진행 1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총 4건으로 다수를 차지
-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해외에서의 무역구제조치 피소건수 및 국내 산업계의 수입규제 요구에 비해 자국 내 무역구제제도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국 기업이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음

<베트남의 수입규제(조사 포함) 현황 (조사개시일 순)>

품목명	유형	조사 개시일	최종판정일	대상국	비고
식물성 유지	세이프가드	'12.12.26	'13.8.23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3.9.7부터 4년간 증가세 부과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13.7.2	'15.9.5	중국, 인니, 말련, 대만	('16.4.29) 중국, 인니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
글루탐산나트륨 (MSG)	세이프가드	'15.9.1	'16.3.10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6.3.25부터 4년간 통당 증량세 부과
반카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15.12.25	'16.7.18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16.3.22)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16.8.2부터 4년간 증가세 부과
도금강 제품	반덤핑	'16.3.3	-	한국, 중국(홍콩 포함)	('16.9.1)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	세이프가드	'16.7.6	-	전 세계 모든 국가 (한국 포함)	-

* 자료원 : 베트남 경쟁관리국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 수입업자 요건 규정을 강화하여 수입 제한

- 9인승 이하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입과 관련해 해외 생산기업의 수입·유통권 위임서류, 수입·유통업체 지정서류, 해외 공관의 공증을 받은 총판 계약서 중 하나를 수입 통관 시 제출하도록 규정(9인승 이하 승용차 수입 수속 관련 추가 규정 시행규칙 Circular 20/2011/TT-BCT)
 - * 신규 투자법 발효로 상기 시행규칙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2016년 9월 현재 해당 규정 존폐 여부를 두고 논의 중임

- 주류 수입의 경우 주류 유통 사업허가서를 지닌 기업에 한해서만 주류 수입을 허용(주류 생산·사업 시행령 Decree No.94/2012/ND-CP)

□ 우리기업 수출 성공사례(1) : 유망한 베트남 음료시장 공략한 A사

○ 수출 개요

- 한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음료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음
- 최근까지 베트남 내 한인마트 등을 통한 간접수출만을 해오던 A사는 본격적인 베트남 음료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접촉하였음
- 베트남 시장의 니즈와 발전가능성을 장기간에 걸쳐 면밀히 파악한 A사는 2016년 2월 첫 직접수출 후 9월까지 약 US\$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함

○ 시사점

- 베트남 음료시장은 최근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 베트남 음료시장 규모(BMI Research) : ('15년) 14.7억 달러 → ('16년) 16.2억 달러 → ('17년) 18.0억 달러
- 베트남 내 음료제품의 주 소비층인 젊은 세대가 한국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A사가 적절히 공략하여 이뤄낸 성과로 보임
- 베트남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어 우리기업은 베트남 소비시장 트렌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기업 수출 성공사례(2) :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베트남 LED시장 진출한 B사

○ 수출 개요

- LED 실외조명을 생산하는 B사는 베트남의 공공조달시장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베트남 진출에 도전함
- 진출 과정에서 한국산 LED 조명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고 중국산 저가제품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B사는 품질 경쟁이 가능한 실외조명 품목에 집중함
- B사는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 화력·수력 발전소의 조명 교체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고 시내, 고속도로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임

- 시사점
 - 베트남의 조명시장은 아직까지도 고압 수은전구 또는 소듐전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전력난의 대안으로 LED 조명이 부각되기 시작함
 - B사는 베트남 정부의 공공조명 교체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포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사업 실적으로 삼아 추가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2. 투자진출

□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

- 2016년 상반기 기준, 對베트남 외국인투자 건수 및 금액 큰 폭으로 증가
 - 2016년 1~6월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1,680건, US\$ 11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투자건수는 61.8%, 투자금액은 105.4% 증가
 - * 2016년 1~6월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35%를 한국이 차지,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임

<베트남의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 USD백만,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투자 금액	15,598	16,348	22,352	20,230	22,757	11,284
투자 건수	1,191	1,287	1,530	2,182	2,827	1,680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기획투자부(MPI)

-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있음
 - 2016년 상반기, 삼성, LG전자 협력사 및 중국, 대만, 홍콩계 섬유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가 전체 투자의 71.5% 차지
 - * 제조업 분야 투자 : 전년 동기 대비 투자건수 69.1% ↑, 투자금액 92.6% ↑

□ 주요국 對베트남 투자동향

- 한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주요 투자국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투자 증가세를 보임
 - * 2016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투자증가율 : 한국(162% ↑), 일본(147% ↑), 싱가포르(327% ↑), 대만(268% ↑)
 - * 한국, 일본의 경우 전기전자제조업 투자가 집중된 반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미국 등은 섬유·봉제산업 투자가 활발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가파르게 상승

- 2016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건수 47.9%, 투자금액 162.0%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D백만, 신고기준)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총 누계
건 수	345	332	488	684	962	546	5,364
투자액	1,466	1,178	4,293	7,327	6,727	3,991.4	48,510.0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투자액은 US\$ 302억 달러, 전체 투자의 약 76% 차지)

* 주요 사례 : LG디스플레이(15억 달러), 삼성R&D센터(3억 달러), 태광산업(1.7억 달러), 동원베트남(6천만 달러)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USD백만)

순번	구분 산업	1988년 이후 누적			2016년 상반기(1~6월)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점유율 (%)	투자 건수	투자 금액	점유율 (%)
1	제조, 가공	3,188	33,398.6	68.8	331	3,028.8	75.9
2	부동산경영	100	7,814.6	16.1	4	161.7	4.1
3	건설	689	2,708.3	5.6	50	264.8	6.6
4	물류운수	97	960.8	2.0	16	28.2	0.7
5	도소매, 유지보수	346	769.6	1.6	57	114.8	2.9
6	호텔, 요식업	134	732.0	1.5	15	17.9	0.4
7	기술과학전문	342	543.2	1.1	23	307.9	7.7
8	전력, 가스, 용수 생산공급	33	453.1	0.9	-	-	-
9	정보통신업	186	240.7	0.5	24	30.2	0.8
10	의학 및 사회봉사	26	223.6	0.5	-	-	-
11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24	183.8	0.4	-	-	-
12	채광산업	4	114.3	0.2	-	-	-
13	농, 임, 수산	41	113.6	0.2	5	23.5	0.6
14	재정, 금융업	12	106.3	0.2	2	9.9	0.2
15	행정, 지원 서비스	31	67.6	0.1	4	0.8	0.02
16	기타 서비스업	56	42.4	0.1	3	0.4	0.01
17	용수 및 폐기물 처리	12	21.1	0.04	1	1.0	0.03
18	교육, 양성	42	15.5	0.03	11	1.6	0.04
19	가정용 렌탈서비스업	1	0.3	0.01	-	-	-
합 계		5,364	48,510.0	100	546	3,991.4	100

* 자료원 :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누적 투자순, 누적통계 2016년 6월 기준

□ 베트남 투자진출 진입장벽

○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 과거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 투자는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유치했으나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대하고 노동집약 산업, 환경오염 유발산업은 제한하는 추세임

* 일반 제조업 분야 투자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없고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유통·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일부만 조건부로 개방

- 2015년 新투자법은 일부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개방하고 있으나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진입기준을 두어 사실상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총 267개 조건부 사업 분야를 지정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별도의 허가 기준 적용

□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 베트남 정보통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I사

○ 진출 개요

- 해당 기업은 시스템통합구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기업으로 2014년부터 베트남 시장진출에 관심을 가짐
- KOTRA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소개 설명회, 기술 시현, 현지 대학 및 기업과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을 함

○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 빠른 현지 진출 및 사업안정화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을 수주하고 수행했으며 수행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 발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음
- 현지 전문 기술인력 충원 및 교육을 통한 조직 구성,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베트남을 활용

○ 시사점

- 베트남에 진출한 정보통신 한국기업 대부분이 공사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오피스 등 단기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I사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인프라 기반을 조성한 결과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되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했음

□ 우리기업 투자진출 실패 사례 : 선부른 토지계약이 부른 피해 A사

○ 진출 개요

- 해당 기업은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하노이 인근 빈푹성 내 공장을 설립함
- 정부가 인증한 정규 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안정적이나 토지비가 저렴하다는 현지 지인의 말을 믿고 공단 밖에 위치한 지역에 투자계약을 맺음

○ 사업현황 및 문제점

- 베트남 법률상 공단 외 일반 지역의 경우 토지 사용 용도가 공장설립 용도로 되어있어야 하며 일반 농지일 경우 보상 및 인허가 문제로 용도 변경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
- 결국 A사는 계약 보증금(US\$ 30,000 달러)을 포기하고 공단지역에 다시 토지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추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장 가동까지 당초 계획된 기간 보다 더 소요됨

○ 시사점

- 베트남 현지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현지 지인 등 非전문인을 통한 투자진행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현지 한국 정부기관 또는 법률 업체와의 자문을 통한 투자진행 필요

3. 프로젝트

□ 베트남 건설·인프라 시장 동향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는 약 US\$ 104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5.5% 성장이 전망됨
- 전체 시장 규모 중 인프라 시장 규모는 약 32억 달러로 30% 수준이며 전년대비 약 6.4% 성장이 전망됨
- * (주택건설시장) 68억 달러, (인프라 건설시장) 32억 달러, (에너지 유틸리티 건설시장) 10억 달러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 USD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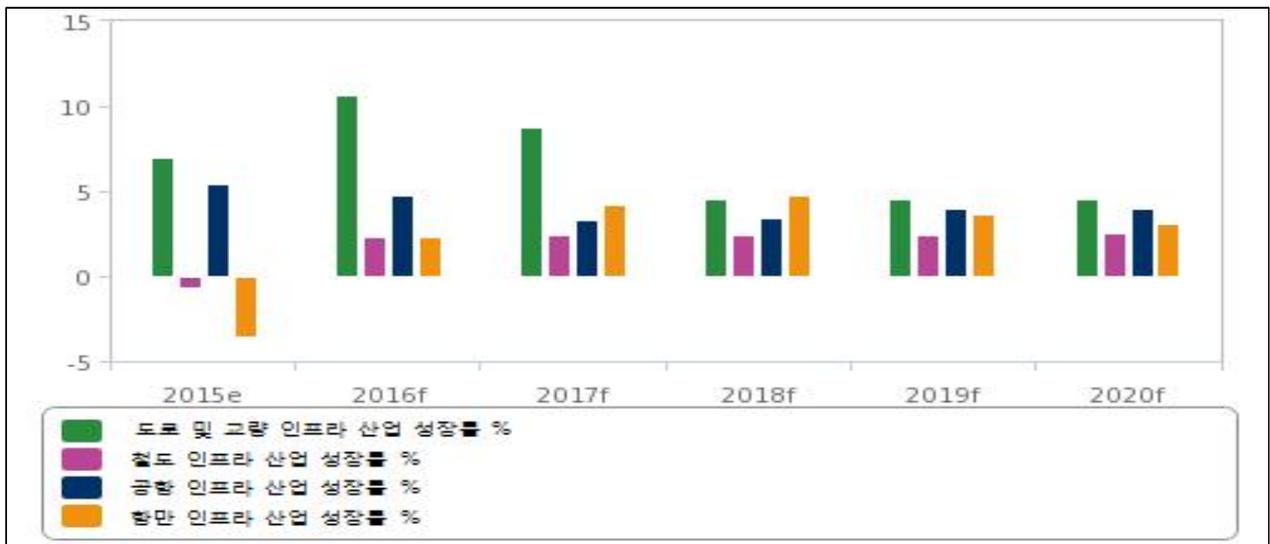
연 도	2015(e)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전체건설시장	9880	10,390	11,550	12,820	14,280	15,760
실질 성장률(%)	2.04	5.47	6.28	6.09	6.10	6.06
인프라 분야	2,940	3,190	3,540	3,860	4,210	4,590
실질 성장률(%)	3.8	6.4	5.8	4.3	4.3	4.2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BMI Research

□ 수송 · 교통 인프라

- 베트남 2016~2020년 수송 · 교통 개발전략계획에 따른 필요한 개발비용은 약 US\$ 500억 달러이나 그 중 약 28%만이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음
 - 그 중 수송 · 교통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필요비용은 약 US\$ 30억 달러임
 - * 2016년 개발비용 구조 : (정부재원) 7억 9,000만 달러, (국채) 7억 3,000 달러, (민자유치) 14억 달러
 - * 수송 · 도로 프로젝트 외국투자 참여비율 : 47%(한국 13%, 일본 11%, 미국 8% 등)
- PPP(민관협력)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늘어날 전망
 - 2016~2020년 항만, 공항 등을 포함한 수송 · 교통 인프라 중점 개발 프로젝트는 Dau Giay-Phan Thiet-Nha Trang 고속도로, Ninh Binh-Thanh Hoa-Vung Ang 고속도로, Long Thanh 국제공항 및 기타 23개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임
 - * 상기 프로젝트들의 정부재원은 약 US\$ 18억 3,000달러이며, 투자자 자기자본은 18억 달러 가량임

< 베트남 수송 · 교통 인프라 산업성장률 추이 >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BMI Research

□ 전력 인프라

-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베트남 전력 수요는 2005~2014년 연평균 12.1% 증가했고, 2016~2020년은 10.5%, 2021~2030년은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발전설비 용량을 2020년까지 75GW, 2030년까지 147GW로 확대할 예정이며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 외에도 '재생에너지개발전략 2030'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 * 2020년 베트남 발전설비 구성 목표 : 석유·가스(19%), 석탄(46%), 수력(26%), 재생에너지(5%), 기타(4%)

<베트남 전력소비변화 및 전력수요 전망(2015~2030년)>

	2015	2020	2025	2030
수요(TWh)	141.8	234.6	352.3	506.0
발전량(TWh)	161.3	265.4	400.3	571.8
최대수요(GW)	25.3	42.1	63.5	90.7
설비용량(GW)	43.0	71.8	93.2	147.0
1인당 수요(kWh)	1,560	2,545	3,610	4,950

* 자료원 : ADB 2016 보고서, 베트남 2011~2020년 전력 개발계획

- 발전설비 확충을 위해 원료 확보 계획 실행, 각종 인프라 확충 필요
 - (천연가스) 산업발전에 필요한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인프라 건설 추진
 - * PVN(석유공사)는 Vung Tau 지역에 Thi Vai LNG 터미널 개발 중, 2차로 Son My LNG 터미널 공사 2018년 개발 시작, 러시아 GAZPROM과 천연가스 판매구입 계약 체결 연간 48Bcf 가스 공급
 - (석탄) 산업부문 전력수요 증가 충당을 위해 화력발전 비중 확대 계획
 - * PVN(석유공사)는 2017년부터 연간 석탄 11백만 톤을 수입, 3개 발전소(남부2개, 북부1개)에 공급예정

<한국기업 베트남 전력플랜트 사업 참여현황>

순번	프로젝트명	수주규모(달러)	참가사	발주처	계약시기
1	송하우 1 석탄화력발전소	1조	두산중공업	PVN	2015년 4월
2	응이손 2 석탄화력발전소	1조 8천억	마루베니, KEPCO, 두산중공업	마루베니	2014년 12월
3	빙떤 4 석탄화력발전소	1조 6천억	두산중공업	EVN	2013년 11월
4	몽즈영 1 석탄화력발전소	1조 6천억	현대중공업	EVN	2011년 9월
5	몽즈영 2 석탄화력발전소	1조 5천억	두산중공업	A&P 석탄공사	2010년 12월
6	타이빈 2 석탄화력발전소	7,400억	대림산업	PVN	2012년 5월
7	오문 석탄화력발전소	3,000억	대림산업	EVN	2012년 8월
8	남딘 화력발전소	2조 4천억	태광실업, 아크아파워(사우디)	자체개발	2016년

* 자료원 :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은 재생에너지개발전략 2030에 기초하여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풍력 및 태양열) 활용 촉진정책 추진
 - (풍력발전) 베트남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약 27,750MW로, 현재 총 52MW 3개 풍력발전소 운영 중
 - (태양광발전) 베트남의 태양광 잠재량은 13,000MW로 추정, 현재 베트남 설비용량은 약 4MW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
 - (바이오발전) 바이오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현재는 고품 도시쓰레기 발전 형태로 미미하게 이용 중

□ 용수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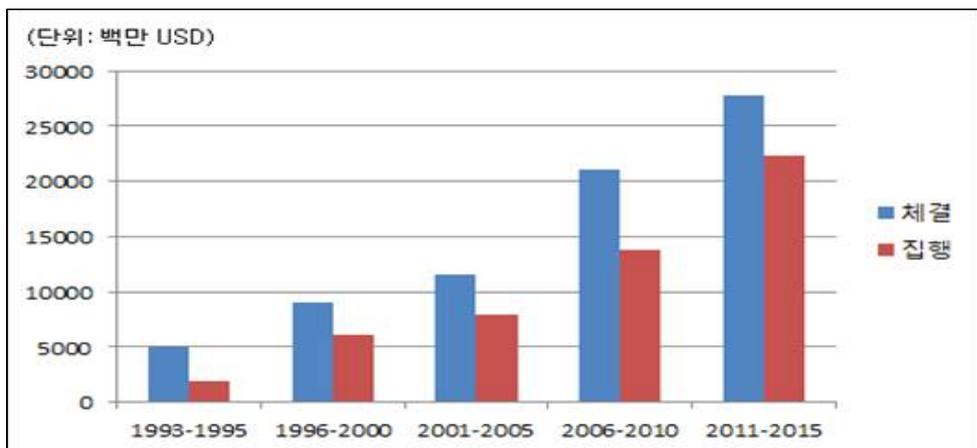
- 베트남 용수공급 및 수처리 플랜트 시장은 2016~2020년 연평균 5.5% 성장 전망, 하노이 및 호치민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규모 수처리 시설 필요
 - ADB는 2020년까지 베트남 수처리 개선 사업에 10억 달러 차관 제공 약속
 -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ODA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추가 투자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PPP 방식의 사업 추진 희망
 - * 베트남 전역 15개 시/성에 수처리 플랜트 사업계획, US\$ 5억 달러 예산 필요
 - * 베트남 전역 232개 산업공단 중 143개 공단만이 수처리 시설 운영 중

4. ODA(공적개발원조)

□ 최근 5년간 베트남의 ODA(공적개발원조) 수원 현황

- 베트남의 ODA 수원 규모
 - (체결) 2011~2015년 베트남이 체결한 ODA 규모는 약 US\$ 277억 8,000만 달러
 - (집행) 동 기간 베트남의 ODA 집행규모는 약 US\$ 223억 달러로 추정
 - * 무상원조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 유상원조 차관이 베트남 주요 ODA
- 베트남의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ODA 수원이 필수불가결
 -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는 2016~2020년 5개년 경제성장 목표(6.5~7%)를 달성하기 위해 총 US\$ 4,800억 달러의 투자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저유가 기조 등의 대외 불안요소로 베트남 정부는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음

<베트남의 기간별 ODA 수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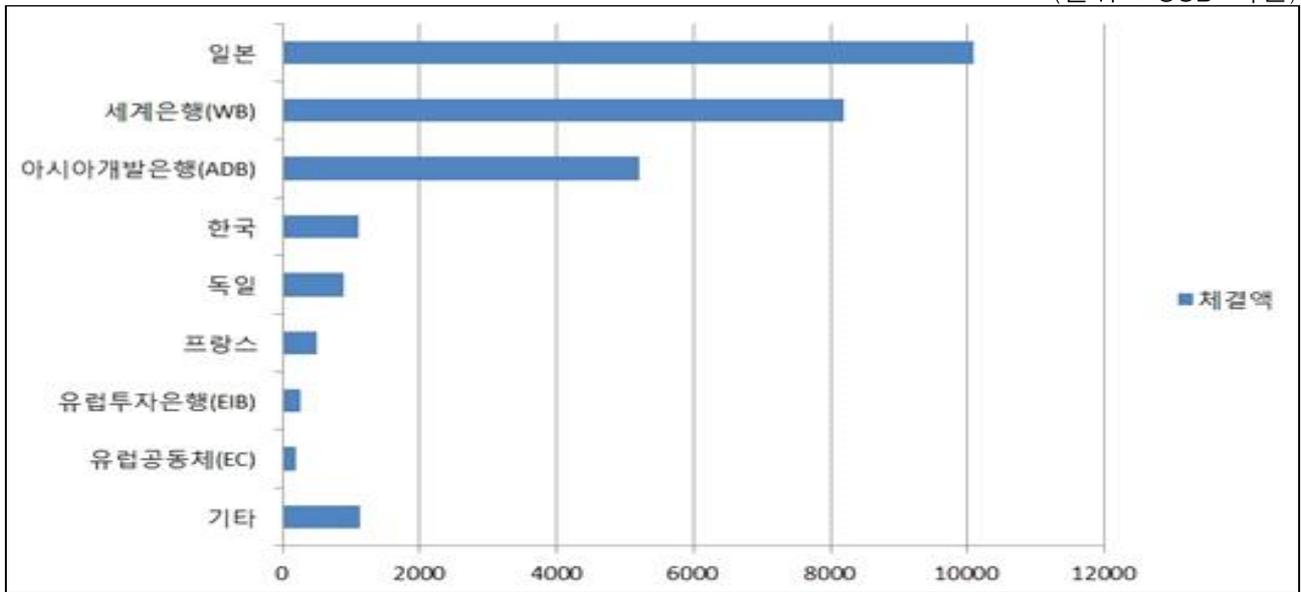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 對 베트남 ODA 주요 공여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의 개발은행과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이 중 일본은 베트남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최근 5년간 US\$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1~2015년 베트남의 공여자별 ODA 수원(체결) 현황>

(단위 : USD 백만)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 분야별 ODA 수원 현황

-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금액의 ODA 체결이 이루어진 분야는 교통·운송 분야임
- 최근 5년간 베트남 교통·운송 분야에 체결된 ODA 차관과 증여 규모는 각각 US\$ 95억 6,600만 달러, 3억 4,8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베트남이 체결한 총 ODA 수원 규모의 약 36%를 차지

<2011~2015년 베트남의 분야별 ODA 체결 현황>

(단위 : USD 백만, %)

구분	ODA 차관·우대차관	증여(무상원조)	총액	비중
교통·운송	9,565.94	347.79	9,913.73	35.68
환경·도시개발	5,048.76	132.51	5,181.27	18.65
에너지·산업	4,730.15	32.34	4,762.49	17.14
농업 및 농촌 개발·빈곤퇴치	2,514.79	117.44	2,632.23	9.47
보건·사회	1,073.12	219.18	1,292.30	4.65
교육·양성	767.85	162.28	930.13	3.35
기타	2,827.35	242.79	3,070.14	11.05
합계	26,527.96	1,254.33	27,782.29	100.00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IV

시장진출전략

※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대형유통망, TV 홈쇼핑 등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함. 또한 PPP 프로젝트 집중 공략, 주요 발주처·에이전트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공공조달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

1. 진출전략 개관

< 베트남 진출 SWOT 분석 >

<p><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및 젊은 인구구조 ○ 넓은 영토 및 풍부한 자원 ○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 해상루트를 통해 미국 등 주요시장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 ○ TPP, AEC, EV FTA 등 다양한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 	<p><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천만 명의 인구 및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 시장 확대 ○ KV FTA 발효, TPP 및 EVFTA 타결, AEC 출범 등에 따른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가능성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 수요 ○ 정부의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른 M&A 시장 활성화
<p><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산업(원부자재, 부품소재 등) 취약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관련,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의 자원 부족 ○ 행정 및 법률 집행의 투명성·일관성 부족, 명확하지 않은 법률 및 규정 ○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p><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해외기업들의 진출 러시로 인해, 베트남 내 경쟁 심화 ○ GDP 대비 높은 공공부채 비율 ○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대외경제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불안정성 존재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과 기술력 제고, 맞춤형 마케팅전략 수립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차별화 필요 ○ 베트남 내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시장 선점 필요 ○ 주요 발주처 및 에이전트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공공조달 프로젝트 수주 도모 ○ ODA 지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PPP 방식 프로젝트 추진동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CSV 활동을 통해 베트남과 동반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기업이미지 구축 	

2. 분야별 진출전략

2-1. 수출

□ 수출품목 다양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 필요

- 생산재에 집중되어 있는 對 베트남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중장기적 수출 성장 모멘텀 확보 필요
 - 2016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에서 자본재와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9%, 29.3%로, 현지 생산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생산재 품목의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
 - 현지 환율 및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산재의 특성상 시장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수출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對 베트남 新수출성장 동력은 소비재 수출을 통한 베트남 내수시장 공략
 - 베트남 내수 소비시장은 매년 10%이상 성장하는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연 6% 이상의 경제성장 속도와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구매력 향상이 소비시장 성장을 견인
 - 베트남의 유통 소비시장은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현대적 유통망은 전체의 25%에 불과, 향후 5년 안에 다국적 유통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
 - * 베트남 가계 총 지출규모 : (2010년) US\$ 771억 달러 → (2015년) US\$ 1,315억 달러
 - **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적 유통망(편의점, 슈퍼마켓 등) 급속 증가 중

- 한국 대형 유통기업 베트남 진출 완료, 한국 상품 유통에 유리한 환경
 - 2016년 9월 기준, 롯데마트(11개 매장), 이마트(1개 매장),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YES24 등 유통기업 기 진출

- 베트남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 2015년 US\$ 40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 성장 전망
 - 온라인 결제수단 부족, 개인정보 보안 취약, 열악한 물류 시스템 등이 제약 요인이나 Cash On Delivery(상품을 인도 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서비스로 이를 극복하고 고속성장 중임
 - * 하노이와 호치민시가 베트남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의 75% 차지

< 베트남 수출유망품목 >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20~22
	수입액(*15/US\$백만)	134	대한수입액(*15/US\$백만)	44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젊은 세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유기농 또는 친환경 성분의 고급 화장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 온라인 판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대도시는 물론 지방 거주 소비자들도 기호에 맞는 화장품을 쉽게 구매하게 됨 - 호치민,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유럽·미국·한국·일본 등 글로벌 브랜드 제품 선호 현상이 뚜렷함 - TPP가 발효될 시, 보다 다양한 해외 브랜드 화장품이 베트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인구를 보유한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비자의 수입 화장품 선호현상으로 인해 해외 브랜드 제품의 점유율이 높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소비자들의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유기농 또는 친환경 성분의 제품의 진출가능성이 높음 - 인터넷 쇼핑과 TV 홈쇼핑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통채널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유효함 -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얻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품목명 2	HS Code	8703	수입관세율(%)	64~70
	수입액(*15/US\$백만)	1,181	대한수입액(*15/US\$백만)	332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현재 발전단계에 있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동차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은 품질 면에서 국내 생산차 보다는 수입차를 선호하고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승 이하 자동차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1,500cc 미만 차량의 특별소비세율이 '16년 7월 1일부로 45%에서 40%로 인하되었으며, '18년 1월 1일부터는 35%까지 추가 인하될 예정 - 이에 따라, 향후 배기량 1,500cc 미만의 소형차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동 품목(승용차) 최대 수출국가임. 이밖에도 인도, 홍콩, 미국, 일본 등이 베트남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가임 - '16년 1~7월 베트남 관세청 통계 기준, 태국은 베트남의 최대 자동차 수출국(수출량 1만 8,837 대) - 그러나 베트남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차량 모델 다수(약 1만 4,000대)가 트럭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신규 특별소비세율 정책(1,500cc 미만의 9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 시행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인해 중고차 구입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을 선호하는 추세로 시장 트렌드 변화 중 -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가 집계한 '16년 상반기 베스트 셀러 차량 모델은 Ford Ranger, Toyota Vios, Toyota Fortuner, Toyota Innova, Kia Morning, Mazda 3, Kia K3, Toyota camry 등으로 나타남

품목명 3	HS Code	8516	수입관세율(%)	3~25
전기식의 즉식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 · 헤어컬러(hair curler) ·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수입액('15/US\$백만)	418	대한수입액('15/US\$백만)	24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전역에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이에 도시 거주 소비자들은 시간절약을 위한 전자제품 소비에 관대한 경향이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에너지 절약 제품을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 - 전자제품의 경우,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온라인 판매보다는 매장을 기반으로 한 유통채널 확보가 유효함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	경쟁동향	- 베트남 전자제품 시장에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중저가 제품군의 경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진출방안	- 지방 및 농촌지역에서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전자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가 중요함 - 최근 에너지 절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신제품 개발 또는 판촉 시 에너지 절약 기능을 장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품목명 4	HS Code	2202	수입관세율(%)	20~35
	수입액('15/US\$백만)	382	대한수입액('15/US\$백만)	8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과실주스와 채소주스 제외)	선정사유	- 최근의 베트남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료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 탄산음료를 비롯하여 커피, 주스,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비자 기호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고 있음		
	시장동향	- 음료제품 선택 시,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으며,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포함된 음료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프리미엄 음료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 현재 베트남 음료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 중 - '16년 초 기준, 펩시가 베트남 음료시장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9.5%의 점유율 기록 - 베트남 기업으로는 Tan Hiep Phat Group이 15.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전체 음료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진출방안	-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효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유통소매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함 -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비롯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함		

품목명 5	HS Code	3307	수입관세율(%)	18~20
	수입액('15/US\$백만)	47	대한수입액('15/US\$백만)	3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 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 (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함께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 - 남녀 모두 개인미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생필품 및 미용 관련 제품으로서 면도용 제품, 개인용 탈취제, 입욕제, 제모제 및 기타 향수와 화장품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성분의 제품으로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한 고급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소비패턴이 다변화됨에 따라 성별, 연령, 피부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되고 있음 - 주요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미디어 마케팅 활동 및 최근 독성이 포함된 화장품 제품 스캔들로 신뢰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제품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제품보다는 해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 '16년 상반기 기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제품의 경우 최근 들어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성분 등이 구매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제품별로 소비자 기호와 경쟁제품을 고려하여 맞춤형 마케팅 수립 필요 		

2-2. 투자진출

□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에 부품공급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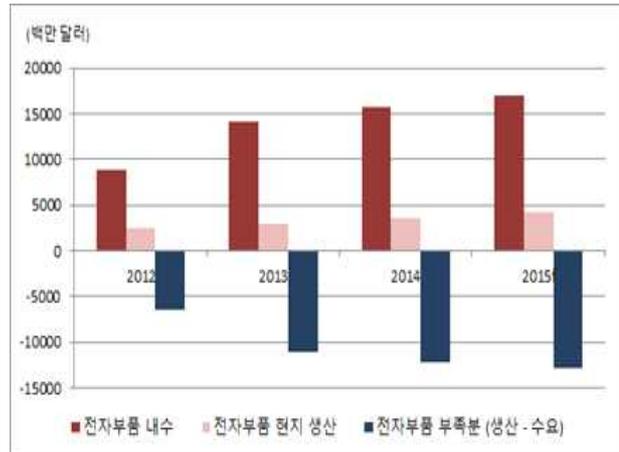
- 2008년부터 시작된 한국 전자업계의 대규모 진출에 따른 국산 전자부품 수요 증가 추세
 - 현재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베트남 내에 전기전자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한국 전기전자 분야 기업의 진출이 예상됨
 - 베트남 정부의 자국 부품소재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조달 구조는 약화되고 점진적으로 부품 현지화가 이루어질 전망

< 삼성전자, LG전자 계열 베트남 투자현황 >

기업명	시기	진출 지역	투자 내용
삼성전자	2011년	박닝성 연풍공단	휴대폰 1공장 가동
	2013년	타이응웬성 연빈공단	휴대폰 2공장 가동
	2020년	호찌민	소비자가전 복합단지 건립
	2016년	하노이	R&D센터 설립 계획 승인
LG전자	2028년	하이퐁	TV, 휴대폰, 생활가전 통합 생산기지 건설
삼성디스플레이	2015년	박닝성 연풍공단	패널 모듈 조립공장 가동
LG디스플레이	2016년	하이퐁	패널 모듈 조립공장 착공
삼성SDI	2010년	하노이	소형 배터리 팩 공장 가동
	2016년	미정	편광필름 공장 착공 예정
삼성전기	2015년	타이응웬성 연빈공단	카메라모듈, 모바일용 기판 공장 가동

* 자료원 : 파이낸셜뉴스

< 베트남의 연도별 전자부품 수급추이 >



* 자료원 : Reed Electronics Research

□ 기계유통 및 A/S 법인설립

- 산업용 공작기계 및 건설기계는 현지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수입에 의존
 - 수입 공작기계는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활동에 주로 쓰이며, 중소기업체들은 중고 기계를 수입하여 사용 중
 - * 중고기계의 경우 일본산 기계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산은 한국기업이 사용
 - 건설기계는 신제품 가격이 비싸 중고기계 수입량이 신제품보다 더 높은 실정
 - * 고객사 직판보다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유통이 일반적, 한국산은 굴착기 및 크레인에 강점
 - 현지 수입 및 유통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베트남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수요가 높아 충분히 유망한 분야임

2-3. 프로젝트

□ ODA(공적개발지원) 프로젝트뿐 아니라 PPP 방식 프로젝트 적극 참여 필요

-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개발 수요 대비 부족한 국가 예산, 베트남 경제 성장에 따라 어려워진 ODA 수원 여건, 세계 채권시장의 침체와 베트남 국내 채권시장의 발달 미비 등으로 인해 PPP 방식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코자 함
 - 베트남 도로 및 교량 건설을 위해 2016~2020년까지 총 US\$ 5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나 전체 예산의 40~50%는 PPP 방식으로 확보 예정
 - 이에 베트남 정부의 PPP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 필요

□ 주요 발주처 및 에이전트와의 파트너링 강화

- 전자정부,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등 공공조달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유력 기업과의 협력이 효과적
 - 베트남 조달시장의 경우 국내입찰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현지 조달시장 유력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장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유력기업과의 파트너링 구축이 중요한 조건 중 하나

□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공사 완공까지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움
 - ODA, 정부예산, 민간예산 등 재원구분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 ODA 프로젝트 중 베트남 정부가 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매칭펀드 프로젝트 역시 베트남 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국영기업이 중심이 되는 전력, 정유 플랜트 사업은 공동투자 형태가 많지만 정부의 지급 보증 사례는 거의 없음
 -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전력공사(EVN), 석유공사(PVN)의 프로젝트 역시 대부분 자금 부족을 겪고 있어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제도는 미흡한 편
-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및 안전장치 마련 필요
 - 베트남 내 진행 프로젝트는 여러 요인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어 계획 단계에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중앙정부 및 성정부와 긴밀한 관계유지 중요
 -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며 소요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부기관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사업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차관, 도급 사업 등 안전한 프로젝트 관심
 - 베트남 시장 특성상 통행료나 수도료, 전기료 등 인상 억제로 투자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개발 사업보다는 해외 원조 등을 통한 단순 도급 공사나 차관 사업 위주로 수주 전략을 짜는 것이 안전

□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지원

- 베트남 엑스포 2017 한국관 참가(4.19~22/하노이)
 -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 지속 참가를 통한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 LAZADA 온/오프라인 한국상품관 운영 (연중/호치민)
 - 베트남 최대 온라인 쇼핑몰 LAZADA 내 한국상품관 지속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입점 확대 및 오프라인 매장* 병행 운영을 통한 수출 확대 기반 구축
 - * 이마트 호치민 지점 및 현지 대형유통망과 협업으로 별도 매장 운영
- 베트남 소비재 유통 진출 세미나 개최 (연중/한국)
 - 우리 기업의 베트남 소비재 유통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진출전략 세미나 및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관계자와 1:1 상담회 실시
 - * 온라인 : LAZADA, Tiki 등 / 오프라인 : 홈쇼핑(CJ 및 현대홈쇼핑) 및 대형마트(꿈마트 등)
- K-Brand 모조품 세미나 개최(하반기/호치민)
 -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K-Brand 위조품 단속을 위한 베트남 단속 공무원 대상 모조품 식별 세미나 개최
- 2017 하노이 한국상품전 개최(하반기/하노이)
 - 한-베 수교 25주년 기념, 양국 간 교역확대 붐 지속을 위한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 투자진출 지원

- 베트남 농업 투자진출 가이드 조사 및 발간(상반기/호치민)
 - 베트남 농업 투자진출 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및 투자대상 지역, 베트남 정부 인센티브 제도, 타국 진출현황, 진출 시 유의사항을 조사하여 책자로 발간
- IT기술로드쇼 및 상담회(상반기/호치민)
 - 전자정부, 이러닝, 핀테크, 게임콘텐츠 등 베트남 유력 IT분야 진출을 위한 우수기술 보유 한국기업 초청 및 로드쇼 개최
- 남부 베트남 인프라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 상담회(하반기/호치민)
 - 최근 호치민·다낭 지역을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는 도시 개발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절단 행사 개최

- 베트남 북부 투자유망 성정부 한국기업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연중/한국)
 - 베트남 북부의 투자유망 성정부와 협력*, 베트남 투자진출 희망 우리 기업에 유용한 정보 제공
 - * '14년, '16년 KOTRA-하남성 공동주최로 세미나 개최

- 글로벌기업 아웃소싱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7월/하노이)
 -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확대 및 베트남 진출 국내 생산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현지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지원
 - 사전 실시한 베트남 진출 생산기업 조사를 토대로 베트남 진출 일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1:1 면담 주선 및 신 사업기회 창출*
 - * '15년, '16년 개최 상담회에 Canon, Panasonic, Sony, Whirlpool, Toyota 등 글로벌기업 참여

- 베트남 프로젝트 플라자 2017 개최(9월/하노이)
 -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 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수주기회 마련을 위해 주요 유망 프로젝트 소개 및 발주처, 정부 정책 담당자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에너지, 교통, 수처리, 기타 인프라 등 우리기업 참여가 가능한 중점 사업으로 한정하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실질적 정보습득의 기회 마련
 - * '16년 베트남 제 1회 사업 실시, 30여 개 프로젝트 발주처 및 정부인사 참여

- '17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우수인력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11월/호치민)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우수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취업 상담회 개최 및 한·베 청년 취업기회 제공

< 작성자 >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한경준	과장	하노이무역관	+84-4-3946-0511	kjhan13@kotra.or.kr
2	김은희	과장	아대양주팀	02-3460-7582	ehkim@kotra.or.kr